교수담론

경쟁논리에 흔들리는 교수상

김 종 덕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입시 철에 명문 대학 수석 합격자의 장래 희망 직업을 보면 대부분 '대학 교수'이다. 공부를 한 후 대학에 남아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한다.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교수직을 염두에 두고 대학원 진학을 하며, 이미 학위과정을 마친 많은 박사들이 교수로 임용되고자 힘쓰고 있다. 극히 일부이지만, 대학 교수직 임용에 금전이 거래되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교수직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교수직은 우리 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직업으로서 교수를 왜 선호하는가?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 교수가 사회적으로 비교적 존경을 받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교수들은 신부 다음으로 정직하며 믿을 만한 직업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은 교수직이 시간 여유가 많은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1년에 방학이 두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학기중에도 1주일에 10시간 안팎의 강의를 제외하면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셋째, 교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직업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회사)의 일을 하는 데 비해 교수는 자기 일(학문)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넷째, 교수들이 다른 직종 종사자에 비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고 여긴다. 대부분 직업의 정년이 60세 전후인 데 비해 교수의 정년은 65세이다. 일단 교수가 되면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직종이 교수직이라고

본다. 다섯째, 사람들은 교수들이 고소득자이며, 삶의 여유를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교수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교수들이 존경받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오랫동안 하고, 경제적인 소득도 높은 직업인가?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우리 사회의 교수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다른 직종 못지 않게 열악하며, 따라서 오늘날 교수직은 안정된 직업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직업이 되고 있다.

무엇이 교수직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가? 오늘날 일부 교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수들은 과거에 비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조사 등에서는 교수직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현재 교수들은 일반인에게는 물론이고 직접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은 국가로부터도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쓴 교수들의 논문의 대부분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도서관에 묻히고 있다. 이는 연구의 질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으나, 행정 부서에서 대학을 대하는 시각과도 무관하지 않다. 행정부에서는 교수들의 논문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우수 논문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팀을 두어 정책연구를 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교수가 국비 지원으로 외국에 나갈 때 대학 교수에 대한 경비 지원은 일률적으로 5급 공무원 수준과 같다. 환갑이 지난 노교수에게도 20대나 30대 초반의 사무관과 똑같이 대우한다.

무한 경쟁이 지배적인 논리가 되고 있는 오늘날의 대학에서 교수직은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 또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지 않다. 이전에는 일단 전임으로 발령받은 후에 과오나 문제가 없다면, 승진은 물론이고 정년까지 대학에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경쟁체제를 강조하고 있는 오늘날의 대학에서 교수들의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특정 학과나 학부에서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수강을 기피하게 되면 그 과목은 폐강이 되어 교수들은 강의 기회를 잃게 된다. 요즈음 학생들은 응용과목에만 몰리고 기초과목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학문적 편식이나 편향이 학문의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부정적임에도 대학들은 경쟁논리에 집착하여 수강생이 일정 수 미만인 과목에 대해 기계적으로 폐강 조치를 단행한다. 또한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부제와 이중 전공제가 학문의 편식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학부제와 이중 전공제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자는 취지 아래 마련된 것이지만, 대학의 학문 분야와 교과목을 대폭

줄임으로써 학문의 폭을 좁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지금 대학에서는 어느 분야(학과)의 학문이 살아 남을 것인가, 어느 전공이 살아남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수를 가혹한 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 학생들에게 세일즈를 잘하는 교수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교수는 학교를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이다. 각 학문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갖고 사회적인 기여를 하면서 여러 학문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대학에서는 단지 학생들의 관심이나 수강 태도에 의해 학문의 발전이나 소멸이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학에도 상품시장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안 팔리는 상품(강좌)은 시장(대학)에서 도태된다. 대학에 상품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많은 대학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업적 평가, 강의 평가 등 평가제도의 도입도 교수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많은 교수들이 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떠한 잣대로 평가하느냐'라는 방법의 정당성에 있다. 그런데 현재 많은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계량화에 토대한 연구업적의 평가와 강의 평가는 교수들의 교육, 연구, 봉사를 계량화하는 것이 쉽지 않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각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평가 방식은 계량화에 토대한 연구업적 평가 제도에서는 한 편의 좋은 논문을 쓴 교수보다는 수준 이하라도 여러 편의 논문을 쓴 교수가 더 훌륭한 교수가 된다. 길이 남을 논문을 쓰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를 하고자 하는 교수는 요즈음의 대학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임용, 승진, 정년보장 등을 결정하는데 연구업적의 양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 계량화에 토대한 강의 평가제 아래에서는 과제를 적게 내고, 강의 시간에 질문을 적게 하며, 유머감각이 있는 교수들은 학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에, 과제를 많이 내고 강의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며, 딱딱한 분위기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들은 보통 낮은 평가를 받는다. 강의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업적에 반영하는 제도는 교수들로 하여금 강의 내용보다는 강의 기술에 더 매달리도록 이끌어 강의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기술 발전이 또한 대학 교수의 위치를 약화시키고 있다. 컴퓨터 통신의 가속화, 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교수보다 학생이 보다 빠르게 최신 지식을 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전에 교수의 권위는 지식의 선점이나 독점에 의해 가능했으

나, 이제는 그 구조가 무너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컴퓨터 문맹인 컴맹 세대 대학 교수의 위치는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 강의나 화상 강의는 재정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학들에게 좋은 출구가 될 것이며, 이러한 교육방법이 도입되면 대학에서 한꺼번에 많은 교수들을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라는 직업은 이미 사양화되고 있는 직업의 하나다. 1982~1995년에 미국 대학 교수의 고용 저하율은 15%로 같은 기간의 20개 사양직종 중 아홉번째로 높았다. 우리 사회에서도 대학 교수의 고용 저하가 조만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대로 교수들의 존재 조건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수들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교수 신분이 취약한 사립대학 교수의 경우 더욱 그렇다. 교수들은 현재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개인적 대응이 문제 해결이 아님에도 많은 교수들은 개인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교수들에게 밀려오는 파도는 교수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정도나 수준의 파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엄청나게 크게 밀려오는 파도는 교수들이 공동으로 대처할 때 넘을 수 있다.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학과 교수직의 위상을 바로 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종덕/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경남사회연구소장, 미국 버클리대 방문교수, 경남대 민교협 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 "식량 종속의 정치경제학", "미국의 대한 농산물 원조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식량의 정치적 이용" 외 다수를 발표하였다.